



문화 다양성과 유네스코

(Cultural Diversity and UNESCO)

강 · 연 · 자

마츠우라 고이치로 (Koïchiro Matsuura)

유네스코 사무총장 (Director-General, UNESCO)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Forum 개최 현황

구분	일시	강연자	강연주제
제1차	08.1.8	띠에리 드 몽브리알(Thierry de Montbrial)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 정책
제2차	08.2.12	조셉 나이(Joseph Nye)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스마트 파워와 테러와의 전쟁
제3차	08.3.13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George Herbert Walker Bush) 전 미국 대통령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4차	08.4.11	존 후드(John Hood) 옥스퍼드대 총장	21세기 대학교육 개혁
제5차	08.5.27	하산 아부 니마(Hasan Abu Nimah) 요르단 왕립종교연구소장	문명의 충돌은 일어날 것인가? 이슬람과 타문화권 간의 이해



목 차

안내의 말씀

강연자 소개

강연전문 - 국문

강연전문 - 영문

문화 다양성과 유네스코

존경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귀빈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대한민국을 세 번째 공식 방문하는 동안 이처럼 특별한 자리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주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특히 임성준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UNESCO의 큰 관심사 중 한 이슈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문화 다양성’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 그리고 “문화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매우 복잡합니다. 화자와 문맥에 따라 그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먼저, 유네스코의 시각에서 “문화”와 “문화 다양성”의 의미를 밝히고 왜 이것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극히 중대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네스코의 시원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45년 2차 세계 대전의 참화에 뒤이어,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당시 문화의 개념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주로 미술, 문학, 그리고 특정한 공연 예술만을 의미했습니다. 각 회원국이 지닌 “문화의 독립, 통합 그리고 풍부한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유네스코 헌장에 명시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는 민족 국가의 경계를 기준으로 서로 구별되는 문화가 존재함을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약 30년이 지난 후, 역사적인 1978년 보고타 문화 정책 회담에서 문화의 개념은 “단지 사회 활동의 수단 혹은 보조적 도구가 아닌, 한 사회의 가치와 산물, 그리고 삶 그 자체에 관한 표현의 총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의 문화 개념은 2001년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몇 가지 출처에 기반한 것입니다. 1982년 멕시코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문화 장관 회의(MONDIACULT)로 알려진 ‘세계 문화 정책 회의’의 결정

문, 1995년 ‘세계 문화 발전 위원회’의 보고서, 그리고 1998년 스톡홀름에서 UNESCO가 주최한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에 관한 정부간 회의’의 결정문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에서는 문화를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또 예술 및 문학 뿐 아니라 생활양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를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사회 내부와 각 사회들 간 다양성의 존중에 기초한 문화 정책의 근본 원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그에 따라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명명했습니다. 이 선언은 실행 계획으로 뒷받침되면서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정체성을 지닌 사람 및 집단간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문화가 표현되는 무수한 형태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유네스코는 문화간 소통 및 문화 다양성은 불가분하고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수한 문화적 표현 양식들은 인간의 풍부한 상상력, 지식, 그리고 가치 체계가 반영된 것으로, 개개인의 통합과 총체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대화가 회복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문화적 표현 양식에 대한 존중은 그러한 표현 양식들이 인권 및 근본 가치에 대한 존중과 모순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유네스코가 문화 영역에 참여하는 기반이 되는 주요 관념들은 불변해왔습니다. 이는 문화를 대화와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다원적 인간주의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불변하고, 폐쇄적인 문화 단위에 대응하는 소수의 “문명”으로 이루어진 세계관과는 달리, 유네스코는 소통을 통해 풍부해지는 문화 다양성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소통의 이슈가 현재 국제 정치 의제의 정점에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는 2002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인 5월 21일의 연례 행사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대화는 양자 모두 세계의 통합을 보장해 온 총체적인 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의 세계는 각각의 문화가 정체성과 존엄성의 유지를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수 십년 간 국가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자유화되었고, 기술 역시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세계화 현상은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팽창은 물질, 정보 그리고 사상의 흐름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식의 보급을 증진시키고 전 세계 간의 대화를 증대시키는 훌륭한 기회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세계의 문화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반드시 미치지 마련입니다.

사실상 세계화는, 종종 두려움의 대상이 되듯, 그 현상이 일어나는 곳의 모든 것을 동질화하지는 않습니다. 교환의 매우 근본적인 원리는 일정한 다양성을 반드시 내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계화를 마치 악마처럼 보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의 세대들이 이러한 과정을 인류 역사 상 위대한 일로 진전으로 볼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세계화의 잠재력을 잘 활용하고 그 모든 결과를 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모든 사회와 개인들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전제 하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계화 과정에 함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의 혜택은 국가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는 그 자체로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지, 편협 혹은 낙인에 의해 초래되는 긴장과 갈등을 제거할 수단을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증진시킬 만한 자원을 지닌 국가 및 지역과 그렇지 않은 국가 및 지역들 간의 격차를 메울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종종 사회적 통합의 결여, 전 세계적인 안보의 결여, 언어를 포함한 문화적 획일화의 위험- 다시 말해서, 인류의 불평등한 발전을 초래합니다. 여기서 “인류의 발전”이란 단지 경제 성장 뿐 아니라 각자의 운명을 충분히 실현시킬 만큼의 역량과 자유에 기반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불가분한 도덕적인 원칙으로서, 인간의 발전에 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각 국가들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행위자에게 적합한 역할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새로운 상황을 고려해서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유네스코는 국가와 공공 부문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와 민간 부문을 포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화 다양성의 공헌자인 동시에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역할 또한 담당해야 합니다. 국가와 함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비정부 기구의 참여와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은 국제적 책임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고 문화를 성장 전략의 핵심에 두려는 유네스코의 노력을 지지하는 데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특히 고무적입니다. 한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력은 특히 문화 유산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유산 목록에 등재된 7개의 문화 유적지, 3개의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결작, 인간 문화재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문화재 불법 밀수에 대한 엄정한 국가적 대처 등을 통해서 한국은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명백히 보여왔습니다. 이 외에도 적잖은 규모의 신탁 기금을 통해 국내외 다수의 보존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왔습니다.

한국은 또한 전 세계 사람들 간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중앙 아시아 문화간 대화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탁월한 역할, 그리고 국제 중앙 아시아 연구소의 회원 지위를 통해서도 증명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저는 광주에서 동아시아 어린이들 간의 상호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계획된 '2008년 유네스코 어린이 공연 예술제'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연례 행사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네스코와 한국의 관계 당국은 현재 세 가지의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네스코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ICPRCP)가 올해 출범 3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서울에서 특별회의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는 제 2차 국제 예술 교육 회의로, 서울에서 2010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심 찬 아시아 문화 허브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이 행사를 통해 광주는 2012년까지 문화 교류, 창조, 교육, 연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주요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국제 협력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같은 기관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즉, 전 세계의 대화와 교류, 특히 문화와 교육의 영역에서 이를 위해 진정한 연결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국제교류재단의 여러 분야에 걸친 복합적 접근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호 이해와 평화적 공존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또한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특히 풀뿌리 비정부 기구의 역할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결정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소중한 의견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 이외에도, 유네스코는 기준 설정 활동을 통해 문화 다양성

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네스코는 전통과 현재의 창조성 모두를 포함하는 관점에서 문화 다양성의 여러 측면을 보존하기 위해 1950년대 이후 7개의 국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조약들에 관해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문화 영역에 관한 유네스코 최초의 협약은 세계 저작권 협약이었는데, 1952년에 채택되었고 1971년 2개의 의정서가 추가되었습니다. 1954년 헤이그 협약은 무력 분쟁의 경우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54년과 1999년에 1차, 2차 의정서가 각각 채택되었습니다. 1970년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협약을 통해 이동가능한 문화자산 역시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2008년 7월 현재, 앞에서 언급했던 한국의 유적지 7개를 포함해서 700개 이상의 다양한 문화 유적지들이 1972년 세계 헤이그 협약 하에 보호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네스코의 세계적 명성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2001년 수중 문화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역시 올해 발효될 예정인데, 전 세계 침수된 선박의 잔해 및 고고학적 유적지의 강력한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구전, 공연 예술, 축제, 사회적 풍습 및 지식 체계는 2003년 무형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예술은 지금까지 1952년 협약된 저작권 하에서만 보호되어왔는데, 이제부터는 2005년에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현재까지 한국은 1952년, 1970년, 1972년 및 2003년 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나머지 네 개 협약에 대해서도 조인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협약들은, 문화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의 전략의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보편 선언 제 7조에서 법률적 조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풍성해 진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유산이 보존되고 고양되며 인간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이 진작되고 진정한 문화간 대화가 고무될 수 있을 것이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난관은, 어떻게 이러한 법률적 기제들 간에 상호 보완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일반적으로 총체로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합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유네스코는 개개인을 위해 조화로운 인간의 발전 조건을 형성하여 세계 평화를 보존하는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갈등을 완화 혹은 해소하는 데 있어 문화 유산과 예술 작품의 역할이 지대함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Monstar 다리의 재건축 사례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갈등 해소와 관련된 그러한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아 해소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보충적 접근은 창조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발 도상국들이 이를 통해 전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문화 다양성이 위협에 처했을 때 이를 존중하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2001년 보편 선언에 대한 실행 계획에서 권고된 것들입니다. 즉,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의 인식을 증진시키며, 디지털 공간에서 언어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현재 풍부한 예술적 가치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개발 도상국들에서 문화 산업이 형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세계적 맥락을 고려할 때, 우리가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다 심각한 사회적 과편화 현상을 목도하는 위험을 무릅쓰게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사회를 결속시키는 뿌리 깊은 연결 고리들이 대부분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전의 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매우 거대합니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 전체로서만 이에 맞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국제 사회는 물론 국제 기구와 국가뿐 아니라 광의의 시민 사회, 그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그것을 대표하는 기관, 그리고 민간 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열린 대화와 교류 및 인류 공동에 대한 이해의 맥락에서 다양성이 증진되도록 장려하는 것은 21세기 세계화와 관련된 중요 문제입니다. 유네스코는 이처럼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력의 촉진에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ultural Diversity and UNESCO

Honourable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both an honour and a pleasure to join you today at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 Foundation. I would first like to thank the Foundation and in particular its president, Yim Sung-joon, for the kind invitation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assembly during my third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Today,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my thoughts on an issue of great concern to UNESCO, as well as to the Korea Foundation, namely, “cultural diversity in our globalized twenty-first century”

The terms “culture” and “cultural diversity” are quite complex. They can take on different meanings and interpretations depending on the speaker and the context. I would therefore like to begin by attempting to clarify the significance of “culture” and “cultural diversity” in the eyes of UNESCO, and why we consider them so vital for the future of humanity.

To do so, we must go back briefly to the genesis of the organization. UNESCO was created in 1945, in the wake of the devastating Second World War,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peace and security by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nations through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At that time, the notion of culture was quite restrictive. It referred primarily to the fine arts, literature and certain performing arts. Among the objectives stated in the Constitution of UNESCO is preserving “the independence, integrity and fruitful diversity of the cultures” of its member states. The assumption was that there existed distinct cultures corresponding to the borders of nation-states.

Some three decades later, the landmark 1978 Bogotá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which UNESCO organized, enlarged the notion of culture by qualifying it as “the sum total of the values and creations of a society and the expression of life itself, [...] and not a simple means or subsidiary instrument of social activity”

The current definition of culture, incorporated in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dopted in 2001, draws on several sources: the conclusions of the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known as MONDIACULT, which took place in Mexico City in 1982; the work of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published in 1995; and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organized by UNESCO in Stockholm in 1998. Adopting a far more inclusive approach, these documents recognize culture as “the set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features of a society or a social group, [...] encompassing, in addition to art and literature, lifestyles, ways of living together, value systems, traditions and beliefs”

By acknowledging the wider scope of culture in this way, we have paved the way for the principle of a cultural policy based on the recognition of diversity within and among societies. Accordingly,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designated cultural diversity as 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This declaration, buttressed by an action plan, was conceived to tackle the dual challenge of cultural diversity: on the one hand, to ensure harmonious interaction and dialogue among people and groups with varied and dynamic cultural identities, as well as a willingness to live together. On the other hand, to protect and enhance the numerous forms in which cultures are expressed. Indeed, UNESCO considers intercultural dialogue and cultural diversity to be inseparable and mutually dependent.

The myriad cultural expressions, which reflect the wealth of human imagination, knowledge and value systems, offer tremendous potential for renewed dialogue, helping to facilitate each individual’s integration and participation in society as a whole. However, there must be respect for all cultural expressions, provided, of course, that they are consistent with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values.

The main ideas that underlie UNESCO's commitment in the field of culture have remained unchanged in that they are based on the paradigm of plural humanity in which cultures are dynamic processes constantly reinvented through dialogue and exchange. In contrast to the vision of a world composed of a handful of "civilizations" corresponding to immutable closed cultural units, UNESCO upholds the vision of cultural diversity, which derives its very wealth from dialogue.

We are most pleased to note that diversity and its corollary, dialogue, are now at the top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genda, as attested by the annual celebration on 21 May of the "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 proclaimed in 2002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Both diversity and dialogue are collective strengths, essent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ve become guarantees of the world's cohesion - a world where each culture seeks to preserve its identity and its dignity.

Ladies and Gentlemen,

As you are all aware, the past decades have been marked by an astounding liberalization of national markets and expanding technology. The phenomenon of globalization has emerged in full force. Its expansion, which tends to facilitate the flow of objects, information and ideas, creates wonderful new opportunities for improving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and increasing dialogue worldwide. However, this necessarily has an impact on the world's cultural diversity.

The fact is that globalization does not, as is all too often feared, make everything in its passage homogenous. The very principle of exchange necessarily implies a measure of diversity. Let us therefore refrain from demonizing globalization. I personally believe that future generations will regard this process as a great step forward for the history of humanity, provided that we can make good use of its potential and contain all of its consequences - and above all, provided that it benefits all societies and individuals in an equitable manner.

However, the globalization process is not free from pitfalls. The benefits of globalization vary tremendously from country to country. Moreover, globalization does not in itself provide the means for eliminating tensions and conflicts caused by ignorance, intolerance or the stigmatization of those

who are different. Nor does it help bridge the gap between those countries and regions that have the resources to enhance their cultural heritage and those that do not. This state of affairs often results in a lack of social cohesion, a lack of security worldwide, and greater risks of cultural, including linguistic, standardization - in other words, in unequal human development. By “human development” I mean development that is based not on economic growth alone, but also on each person’s capacity and freedom to fulfil his or her identity. It is my conviction that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s an ethical principle inseparable from respect for human dignity, contributes fully to human development.

It is in this fragile context that we must forge appropriate roles for new actors, or at least recast roles in light of this new state of affairs, since the position of all partners have been radically transformed.

In view of this changing landscape, UNESCO has set itself the goal of bringing together all stakeholders working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 not only States and the public sector, but also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As we are all contributors to and beneficiaries of cultural diversity, we should all be its guarantors as well. Alongside states, the commitmen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etworks to promote respect for diversity are substantive signs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lready at work.

In this regard, we are particularly pleased to note the activ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upporting UNESCO’s ongoing efforts to safeguard cultural diversity and place culture at the heart of development strategie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UNESCO has been particularly fertile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With seven cultural site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three Masterpieces of the Intangible and Oral Heritage of Humanity, a national system of living human resources, and the country’s involvement in the fight against th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Korea has clearly demonstrated its resolve to safeguard its cultural diversity. In addition, its generous funds-in-trust programmes have served to finance a number of conserv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both here and abroad.

Korea also works closely with UNESCO to foster exchanges among peoples of the world, as attested

by the country's prominent role in our programme on Intercultural Dialogue in Central Asia and its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Later this week, I will be in Gwangju to inaugurate the 2008 edition of the UNESCO Children's Performing Arts Festival, designed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peace among the youth of East Asia. This annual event is being generously hosted by Korea for the second time.

Looking to the future, UNESCO and the Korean authorities are currently preparing three important initiatives.

The first is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on the occasion of the committee's 30th anniversary this November. The second is 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which will take place in Seoul in 2010.

And last, but not least, is the ambitious Asian Culture Hub project, which is expected to transform Gwangju into a major centre for cultural exchange, creation, education, research and entertainment by 2012.

But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must also involve the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s like the Korea Foundation, which serves as a genuine platform for global dialogue and exchange,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culture and education. For this reason, I applaud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adopted by the Korea Foundation, which serves to reinforce mutual understanding and peaceful co-existence not only in East Asia but worldwide.

UNESCO also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particularly grass-roots NGOs, which provide valuable input for decision and policy makers.

In addition to its programmes and activities undertaken in all regions of the world, UNESCO endeavours to safeguard cultural diversity through its standard-setting action. To date, seven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been drawn up by UNESCO since the 1950s in order to preserve the



various aspects of cultural diversity, viewed from the angle of both heritage and contemporary creativity.

Let me briefly mention them here.

The first UNESCO convention in the field of culture was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dopted in 1952, with the addition of two Protocols in 1971.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protects cultural heritage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together with the First and Second Protocols adopted in 1954 and 1999, respectively.

Movable property is safeguarded under th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s of this month, over 700 cultural and mixed sites, including the seven Korean sites I mentioned earlier, are protected under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which has greatly enhanced

UNESCO's worldwide renown.

The 2001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hich is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this year, will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much-needed protection of the world's submerged wrecks and archaeological sites.

Oral traditions, performing arts, festivities, social practices and knowledge systems are covered by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emporary creativity, which had hitherto been protected only by copyright under the 1952 Convention, is now also protected by a standard-setting instrument adopted in 2005: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To date, the Republic of Korea has signed the Conventions of 1952, 1970, 1972 and 2003. We hope that national authorities will move to ratify the other four in the near future.

These instruments, which constitute the cornerstone of UNESCO's strategy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translate into legal terms by Article 7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This states that: "Creation draws on the roots of cultural tradition, but flourishes in contact with other cultures. For this reason, heritage in all its forms must be preserved, enhanced and handed on to future generations as a record of human experience and aspirations, so as to foster creativity in all its diversity and to inspire genuine dialogue among cultures"

The challenge that we now face is how to ensure that these legal instruments are mutually supportive, for nowadays it is generally admitted that culture must be considered as a whole. By pursuing such an integrated strategy, the Organization endeavours to accomplish its underlying mission to preserve world peace by creating conditions for harmonious human development for each individual.

The role of heritage and creativity in preventing or resolving tension and conflicts has already proven its worth - in this regard we need only mention the example of the reconstruction of the Mostar Bridge in Bosnia and Herzegovina. UNESCO is firmly committed to pursuing such activities related to

conflict resolution. Similarly, only a supportive approach, geared to poverty reduction, will ensure that developing countries, great providers of creative diversity, can benefit from it to the full.

UNESCO has mobilized all of its sectors to promote respect for and enhancement of cultural diversity in situations where such diversity is under threat. Such action was recommended in the Action Plan relating to the 2001 Universal Declaration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the positiv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in education; to promote linguistic diversity in the digital world; and to encourage the emergence or strengthening of cultural indus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whose immense creative wealth is not sufficiently recognized.

For it is clear that, given the current global context, unless we reinforce our efforts on all fronts, we run the risk of witnessing even more serious social fragmentation and, in the short term, of allowing the most deeply rooted links binding societies to break apart.

The scale of the challenge is, as we all know, immense. It can only be taken up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 and here I mean, of course, not on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tates but also civil society in the broad sense, the individuals comprising it, the organizations representing it, and the private sector.

The major stake entailed in global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is no doubt one of encouraging diversity to flourish within a context of open dialogue and exchange and a spirit of appreciation for our common humanity. UNESCO is proud to work closely with all partners concerned to facilitat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quired to achieve this crucial goal.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11층 정책연구실

Tel _ (02)2046-8636 | Fax _ (02)3463-6076

Homepage: www.kf.or.kr